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 14,15-16)



제1독서

사도 8,5-8.14-17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화답송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1베드 3,15-18 〈또는 1베드 4,13-16〉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 14,15-21 〈또는 요한 17,1-11ㄴ〉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묵상

소유함과 소유됨



갖고 있으나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갖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소유함과 소유됨이 하나 되는
 일치의 기적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 14,20)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사랑은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함께 머무시고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일치를 도와주시는
 분께서 성령이십니다. ‘보호자’로 번역된 성령께서는
 그 말마디의 본디 의미에 따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불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
 낙담하고 슬퍼하는 1세기 말엽의 신앙 공동체에,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일깨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 안에는
 홀로 버려지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 사이를 ‘알맞은 협력자’로
 규정하셨고(창세 2,20 참조), 성령께서는 서로서로
 도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함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사도 2장 참조).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정의와 불의의 대립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을
 지향하되 악을 만나 회개로 이끌고, 정의를 외치되
 불의함을 함께 아파하며 고쳐 나가고, 진보의 개혁을
 보수의 가치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회개 안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가로막는 것은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를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와
 단죄는 그 일치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물리쳐야 할 악마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로 보듬어야 할 작은 이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부터 시작한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 여정의 두 번째 단계를 살펴봅시다. 기도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종교인에게, 그리고 어쩌면 아무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밀한 곳, 곧 영성가들이 종종 “마음”이라고 부르는 내적 공간에서 솟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변부의 어떤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능력도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란 바로 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한낱 감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능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한낱 지성적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육체적 장애가 있어도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온 존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정이며,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탄원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무엇이며, 손을 뻗는 것입니다. 만남의 향수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수는 필요나 요구 그 이상이고, 필수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너(Tu, 하느님)”를 찾는 “나(io)”의 목소리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종종 나의 “나”가 찾고 있는 “너”를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도는 계시에서 나옵니다. “너”는 신비로움에 싸여 있지 않고, 우리와 나누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나타나심(manifestazione)”, 곧 하느님의 에피파니아(Epifanis, 公現)를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전례력의 첫 번째 축제들은 숨어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은 베들레헴의 가난과 동방박사들의 묵상 안에서, 요르단 강에서의 세례와 카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 복음서는 머리글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 1,18).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자애로운 얼굴을 지니신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일반 사람들은 약간 습관적으로 겁을 먹거나, 하느님의 매혹적이고 놀라운 신비에 약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데 소홀하지 않으려는 종과 같은 복종적인 태도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 관계에서 모든 “봉건적인” 관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 안에는 “예속”, “노예” 혹은 “신하” 같은 표현들이 없습니다. 대신 “계약”, “우정”, “약속”, “친교”, “친밀감”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긴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5-16). 이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친구, 동맹자,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께 일련의 청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과연 참인 것처럼,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친구도 아니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녀도 아니며, 충실한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20). 이 행위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미리 예견하십니다. 하느님은 충실한 동맹자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멈춘다 하더라도, 사랑이 자신을 골고타로 이끌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 근처에 계시며, 우리가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인내심은 한 아버지의 인내심이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인내심입니다. 말하자면, 아빠와 엄마의 인내심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는 자애로움과 지극한 사랑으로 두드리십니다.

모두 함께 계약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품 안에서 기도로 들어가 봅시다. 삼위일체의 삶인 행복의 신비에 싸여 있음을 느껴봅시다. 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손님처럼 느껴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놀라움 안에서 하느님께 반복해서 말합시다. ‘당신이 사랑밖에 모르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느님은 미움을 모르십니다. 그분은 미움을 받았지만, 미움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만 아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빛나는 핵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간호사는 생명의 수호자입니다… 조산사의 일은 가장 고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코로나19의 비극을 통해 “생명의 수호자”라는 간호사의 역할을 재발견했다고 강조했다.

타인을 우선하는 이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한 우리가 의료종사자들, “특히 간호사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희생의 증언을 매일 목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충실하게 봉사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난 수많은 의료종사자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을 위해, 그리고 이 전염병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희생된 이들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생명의 수호자

“간호사들은 역사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황은 세계 간호사의 날을 지내는 올해가 “근대 간호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을 가리켜 “생명의 수호자 겸 생명의 보호자”로 묘사했다. 교황은 간호사들이 필요한 치료를 수행하면서 한번도 “용기, 희망, 신뢰”를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랑하는 간호사 여러분

“사랑하는 간호사 여러분, 도덕적 책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교황은 간호사들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생의 모든 국면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살피면서 “꾸준히 귀를 기울이는” 과업을 실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각의 독특한 상황 앞에서 간호사들은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식별과 관심”이라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교황은 “옆집의 성인들” 가운데 간호사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꾸준히 완수하는 ‘야전병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치료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봉사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교황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당부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많은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많은 “결함”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각 개인의 인간 존엄을 존중하면서, 모든 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간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일차적인 공공이익을 위해 의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황은 간호사와 조산사들의 수련 과정에 적합한 “과학적, 인간적, 심리적, 영적 도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품위를 지니고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은 조산사들에게 “특별한 말”을 전했다. 교황은 “생명과 모성애를 위한 봉사에 직접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조산사의 일이 가장 고귀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천국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끝으로 교황은 모든 간호사와 조산사들, 그들이 보살피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 각자에게 사도적 축복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이번 기념일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이 하는 노동의 존엄이 강조되길 바랍니다.”

<<https://www.vaticannews.va/>>

국제카리타스 성명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부족

“수백만 명 기근에 직면… 국제 협력 필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등지 이미 아동 영양실조 등 진행

【바티칸 CNS】 국제카리타스가 경제 불황과 제재, 식량 부족, 기금 감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카리타스는 5월 6일 성명을 통해 “불행하게도 코로나19의 여파는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치명적일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원조공여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카리타스는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취약 계층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나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적으로 기근에 직면한 사람이 “코로나19 이후 두 배로 증가해 2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제카리타스는 “아프리카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아, 봉쇄로 인한 식량 부족과 홍수, 가뭄, 메뚜기떼 공격, 흉작 같은 다양한 재난을 경험할 것”이라면서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이미 아동 영양실조 및 기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이주민,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공적 부조조차 받을 수 없는 취약 계층이다. 이에 국제카리타스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기본 서비스, 특히 보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카리타스 알로이시오 존 사무총장은 “지금은 주요 원조공여국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이례적인 응급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원조를 국내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예측하고 지원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또 다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카리타스는 국제사회에 리비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여 의료품 등 기초 필수품을 수입하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단체에 식량 보안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보건과 현금 지원 같은 우선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봉쇄 조치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을 보장할 추가적인 기금을 지원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위해 교황님께서 요청하신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5월 14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 지속적인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본당 자선 활동의 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니다.

본당의 많은 교우분들이 '자선 헌금' 을 통해 정성스런 봉헌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이에 본당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교우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자선 활동의 날' 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교우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자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3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본당 정문 주차장 예수님상 앞
- 대상 : 본당 교우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려운 분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
- 지원물품 : 쌀, 라면, 감자, 오렌지
- 물품 전달 방법 : Drive Through
 - ▶ 운전자분이 뒷문이나 트렁크를 열어 주시면 회장단에서 물품을 실어드립니다.
 - ▶ 회장단은 마스크와 장갑 착용 후 물품 전달 예정
 - ▶ 운전자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 주교님 사목 보조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BLA 목표 금액의 83%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공동체 미사 재개의 기쁜 소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공동체 미사가 5월 30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미사를 다시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감염 예방과 확산에 대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주보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미사 재개에 따른 봉사자 모집

-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면 미사 때마다 다소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미사 재개시 신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연락 : 단체담당 부회장(sjh5691@gmail.com)

본당 웹사이트 전면 개편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당 웹사이트 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작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새롭게 단장하고 대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25주년 준비위원들과 본당 문화부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미사 책 우편 송부

- '매일미사' 구독자 중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성명(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한성은 모니카(571-331-0391)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5월 21일(목) 오후 5:00-6:00 •특집: 임 따라 한평생 -
- 5월 22일(금) 저녁 8:00-9:00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최기식 신부(2)
- 5월 24일(일) 오전 6:00-7:0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5월 20일(수) 오전 6:15-6:45 | 5월 23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8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틴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